

# ‘시진핑 방한’ 위해 탈북자 600명 복송 눈감았나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2000년 새해 벽두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사건은 ‘7인의 탈북자 복송’이었다. 탈북자 7명이 1999년 11월 중국·러시아 국경에서 러시아 측에 체포됐다. 유엔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중·러가 핑퐁 게임 하듯이 탈북자를 복송, 큰 충격을 줬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건이 확대되자 외교부 장관을 경질했다. DJ는 새 외교장관에게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외교부를 대표해서 마음 아프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게 잊히지 않는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망스럽다. 지난달 한중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중국은 군사작전 하듯이 탈북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복송했다. 지린성, 랴오닝성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 600명을 트럭에 태워 사지(死地)로 보냈다. 탈북자가 6명,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다시 지옥으로 갔는데도 한국

사회는 무덤덤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질책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2000년 7인의 탈북자 사건 때처럼 사과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전혀 언급이 없다. 중국의 탈북자 집단 송환이 알려진 후, 4일 만에 통일부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엄중하게 문제 제기했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전부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가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탈북자 문제

## 2000년 ‘7인의 탈북자’ 복송 때 DJ는 외교장관 경질하며 경고尹, 死地의 탈북자 외면하고 저자세면 文처럼 하대할 것

에서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윤 정부는 윤가를 들어서 갑자기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띄우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월 “시 주석이 지난해 발리 G20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시진핑이 한중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정부의 발표도 나왔다.

시진핑은 2014년 이후 9년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1992

년 양국 수교 후 이런 불균형은 없었다. 그의 방한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악화된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한국의 희망을 잘 알고, 시진핑 방한을 외교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슬쩍 흘러들면서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시진핑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에서 미·일 정상과 만나면서도 굳이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은 ‘몸값 높이기’ 전술로 봐야 한다.

중국 사정에 밝은 이들은 시진핑이 당장 방한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 정부는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라도 먼저 개최하려고 올해 내내 공을 들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몽그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20년 만에 다시 APEC을 개최하는데, 시진핑이 이때야야 방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시진핑의 “방한 검토” 한마디에 정신이 팔려 저자세로 나가다가는 중국의 기만 전술에 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을 중시하며 취임한 지 반년 만에 서둘러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베ijing 혼란’과 중국 외교부장이 아랫사람 대하듯 팔을 툭툭 치는 하대(下待)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준의 맛과 섬 [165]

## 인천 용유도 굴밥

음식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외국에 나갔다 일주일 만에 우리 땅을 밟고 나니, 짭짤하고 칼칼한 맛이 그리웠다. 집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두 시간 정도 남아 있어 공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리운 맛을 찾았다. 그곳이 용유도다. 지금은 섬 이름은 희미해지고, 카페가 많고 노을이 아름다운 마시안과 음양리만 기억되는 섬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영종도와 이어지면서 생긴 일이다. 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영종도라고도 불린다. 한때 제법 여정이 활발해 염전이 발달한 영종도와 다른 섬 살이를 했던 큰 섬이었다. 또 해변이 좋고, 무의도로 가는 길목이라 여름철이면 인천은 물론 서울에서 많은 사람이 찾던 곳이다. 옛길이나 골목에 아직도 그 시절 손맛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찾아가 만난 음식이 굴밥이다. 우리나라 굴밥에 들어가는 큰 굴은 대부분 통영에서 공급한다. 용유도에 서 만난 굴밥도 마찬가지이다. 통영 굴은 양식을 시작해 물로 나오기 전까지 바다에서 자라는 수하식 굴 양식이다. 반대로 조차가 큰 서해에서는 물이 빠지면 햇볕에 노출되는 걸대식 굴 양식을 한다. 그래서 통영이나 거제의 굴 양식보다 딱이 활동 시간이 짧고 알곡 크기도 작다. 돌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굴은 크기가 더 작아 손톱만 하다. 알곡은 작지만 맛과 향이 아주 강하다. 이런 작은 굴은 생굴로 먹는다. 다리가 놓이고 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용유도에서도 작은 굴을 채취했다. 지금은 백령도에서나 작은 굴을 만날 수 있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행객이



찾기 시작하면서 영양굴밥이 용유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어리굴젓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접근성이 편리해지면서 음식의 지역성은 점점 없어진다. 그나마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한다. 외국에 있다 오면 우리 음식만으로도 반갑다. 용유도의 영양굴밥도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역성을 띠기 시작했다. 통영에서 먹었던 굴밥과 상차림이 다르다. 그런데 간혹 용유도에서 먹은 굴밥이 ‘영종도 굴밥’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지역의 이름을 잃는 것은 음식의 맛을 잃는 것만 큼이나 아쉽다. 날씨가 춥다. 굴 철이 시작되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이번엔 “암컷” 막말, 이 당이 200석 얻어 대통령도 탄핵한다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했다. 지난 19일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복론서에서 윤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동물농장에서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라는 건 없다”고 한 것이다. ‘암컷’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써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암컷’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최 전 의원은 여성 보좌진이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짤짤이’ 거짓말을 해 당원권 정치 6개월 징계를 받았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런 사람이 자중은커녕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박장대소했다고 한다. 여성 의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자기편의 허물엔 눈을 감는다.

암컷 발언은 대통령 탄핵 주장으로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하자 민 의원이 “굉장히 설득

력 있는 얘기”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반윤석열, 반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희대의 핏수로 민주주의 절치를 훼손하고 국회를 농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쓴 ‘탈당의 정치’란 책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암컷’ ‘탄핵’ 얘기가 난무했다. 복론서 무대에 오른 세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친이재명계 모임 ‘차렷회’ 소속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어제 라디오에 나와 “200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엔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건방진 x’ ‘어린 x’ 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청년용 현수막이라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을 제작하려다 반발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무위원의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 위협을 하고 실제 한 사람을 억지 탄핵 소추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방통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도 탄핵한다고 한다. 실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총선 때까지 이들이 일을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폭주한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 탈북자 복송 계속한다는 중국, 규탄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국회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자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며 “복송된 탈북자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탈북민 강제 복송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한중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급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복송했다. 추가로 복송을 앞둔 탈북민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복송은 귀국이 아니라 지옥행이다. 수많은 탈북민이 생생히 증언했다.

이번 중국 서한은 지난 7월 북한 인권, 이주인 인권, 여성 폭력 등 유엔 특별보고관 3명과 인권 관련 실무그룹 3곳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 중단을 요청하며 발송한 공동 서한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중국 측 답변서는 지난 9월 13일 도착했다고 한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답변서를 보내고 한 달 뒤 대규모 강제 복송에 나선 것이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잡혀서 돌아가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정

치범수용소까지 간다. 배고파 국경을 넘는 것이 무슨 죄인가. 복송되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유엔도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며, 강제 복송은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지만 이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라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패권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이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역대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을 외면했다. 최근에도 주유엔 대사는 강제 복송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대신 ‘제3국’이란 표현을 썼고, 주중 대사는 “중국의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회도 다를 게 없다. 대규모 강제 복송이 일어난 지 6주가 지나도록 상임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나라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할 리 없다.

### 후퇴 못 하는 허황된 목표 만든 사람들이 실현 수단마저 차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21년 공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황안’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발전·산업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가능성을 따져 감축 목표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비율을 정하고 각 분야별 감축치를 하향식으로 짜 맞췄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2.9%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한 결과, 목표량의 56.2%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거나, 관련 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데도 무턱대고 한다고 했거나, 감축량 계산을 아예 잘못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라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는 NDC 목표가 “정책 의지”를 반영해 하향식으로 설정됐고 검토 기간이 짧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실했다. 당시 김부겸 총리

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체면 때문에 근거 없이 40%로 정했고, 부처 공무원들은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한 분야별 목표치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한번 넘어 잡은 목표치는 파리협정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낮출 수도 없다. 실현 불가능한데 후퇴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전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질 건가.

온실가스 감축은 각국이 힘을 합쳐야 할 목표다. 하지만 문 정부가 정한 40%는 공상 소설 같은 목표다.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 3월 개신안을 마련했는데 그나마 산업계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방법은 원전 비율을 27.4%에서 32.4%까지 늘리는 것이다.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해 후퇴도 못 하게 만들더니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수단도 없애 버렸다. 무엇을 하지는 것인가.

# 문재인, '탈원전' 넘어 '탈핵'... 이재명 일당 원전 예산 봉쇄도 같은 음모

## 미친 바람, 광기는 문재인으로부터 비롯

이쯤 되면 정상적인 대화는 거의 절망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原電)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했다. 그 대신 탈원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256억 원을 증액했다. 대한민국 원전 시스템을 완전히 때려 부수기로 작심하지 않고선, 이따위 일방적 폭거를 할 수 없다.

이 모든 미친 바람은 문재인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2016년 12월 한 편의 재난 영화를 봤다. <판도라>란 원전 사고 영화였다. 그걸 보고 그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룩한 원자력 산업을 끄그러 없애기로 다짐했다.

## 기후 위기 관련 없는 원전 때려잡는 이유는?

그러나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순 엉터리 같은 수작이었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해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이른바 대체 에너지라는 것들이 오히려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를 더 촉진한다. 탈원전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안도현 제주대학교수는 이렇게 적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16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 결과, 첫 3년간 1,121명이 신체의적·정신

문재인, 대한민국 핵 개발 능력까지 틀어막으려 했나? | 영화 보고 감상 찾아 행한 수작 아닐 것 이재명, 文의 흥계 이어받아 北 핵 우위 지속 거드나? | ‘평양 것들’, ‘여의도 것들’ 하는 짓 보고 박수 치겠다

적 고갈로 사망했다.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은 단 1명도 없는데, 방사선 공포가 그만한 인명을 앗아갔다. 원자력을 포기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해진다.”

## 평양은 ‘핵·핵·핵’, 여의도는 ‘탈핵·탈핵·탈핵’?

그러나 원전 폐기 광풍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적인 영화 취미 때문이었을까? 설령 문재인 주관에선 그랬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이상의 정치적 함의(含意)를 읽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 제로(歸)로 황폐화하려는 운동권 발상이라는 의혹이다.

문재인은 영화 <판도라>를 본 후 감독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

[탈원전과는 별도로, [탈(脫)핵]이라는 군사적 개념을

그는 썼다. 그는 왜 북한 핵·미사일에 침묵한 채, 우리의 [핵 개발 가능성]만 막으려 했을까?

## 尹 정부 '탈원전·탈핵 중단' 발목 잡는 이유 뭔가?

2021년 초엔 <조선일보·SBS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을 보도했다. 한국엔 [탈원전] 복엔 [원전 지원]? 이것이 입증된 건 없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운동권의 탈원전·탈핵 음모는 좌절되는 듯했다.

이재명 일당은 급해졌다. [더 늦기 전에] 다른 건 물라도 원전 복귀만은 수단·방법 여하간에 서둘러 막아놓으라야 한다고 불린 것 같다. 뺏아 뺏아, 그들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이 그저 황망하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다.

매가 왔다고 봐서였나? 그들은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민주·민중·민중·자주·평화란 [통일전선 간판] 뒤에 도사렸던 그들 본연의 영기적인 정체성을.

자유인들도 이제 더는 머뭇거리기 이유란 없다. 자유민주인권·시장·공정의 원형 회복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고지(高地)에 [대한민국 수호 범(汎)국민연합]의 깃발을 꽂자!

저들의 [탈원전·탈핵] 흥계를 국민 힘으로 분쇄하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

탄핵정면 '변질' 김부겸, 또 '보수분열' 피하는가	확박한 국민의힘, 비상이다... '정계 개편'으로 뚫어라
송영길 민형배 류의 부채의식·적개심·저주·원한... 밀친 땀어저 그런다	좌익(운동권+민주당)의 방랑 발악, 잡자기 더 흥속해졌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1월 21일 게재 되었습니다.